

# “위안부 문제 종단적 노력 계속할 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나눔의 집 찾아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1운동 93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을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나눔의집에 도착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다 작고한 7분 할머니의 위패가 봉안된 추모비에 헌화하고 법당을 참배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생활관에서 김군자(87), 이옥선(86), 김순옥(91), 박옥선(89), 배준희(88) 할머니들을 만나 위문하고 차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그동안 배상에 대해서 정부도 종단도 노력했으나 좋은 결과가 못나와 안타깝다”며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시길 기원한다. 내년에도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종무에 바쁘신데 두 번씩이나 방문해 주신 원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들께서 연세가 많으시 건강이 염려된다. 할머니들을 건강히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자 할머니는 “올해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아직 정부가 힘이 없는

지 (일본이) 정확히 죄에 대해 말 안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살 건지 모르니 감사하고 당부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옥선 할머니는 “15살에 끌려가

## 3·1운동 93주년 앞두고

### 자승 스님 5대결사 나눔 행보

“봄나들이 하고 싶다”는 요청에

“할머니들 제주 나들이 준비” 지시

중국에서 60년을 살다 돌아왔다. 빨리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순옥 할머니도 “우리가 나눔의 집에 들어온 지도 10년이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내용이 알려지고 빨리 일본이 배상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세분 할머니가 10대에 위안부로 끌려가 60년 동안 중국에 살다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월 28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은 자승 스님에게 위안부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품을 선물하는 모습

한국에 오신지 10년 밖에 안 돼 말씀이 서 툴다. 지금도 중국에 10여 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국에 63분이 생존해 있다. 이 가운데 8분이 나눔의집에서 생활 중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옥선 할머니의 “봄 나들이를 꼭 하고 싶다”는 부탁에 “3월 이후 할머니들이 제주도 나들이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종단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역사관에 60인치 TV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방문에는 사회복지장 혜경 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등이 함께 했다.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과 부원장 호련 스님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어르신 농부양성 한다

개관 5주년 맞은 종로노인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이 개관 5주년과 재수탁 심사를 앞두고 인문학 아카데미, 어르신 농부양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27일 간담회를 열고 2012년 문화·지역·재가복지 분야로 나눈 사업안을 발표했다.

문화복지팀은 음악을 통한 인문학아카데미 ‘찢힌인생사’를 7~8월에 진행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회고함으로써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문화복지팀은 ‘상상클럽데이’를 운영해 어르신들이 밴드 라이브연주, 댄스 타이밍에 참여하는 등 사교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의 유명한 장남을 찾아다니며 문화체험을 하는 ‘장터유랑단’을 비롯해 ‘바른자세 걷기운동 교실’, ‘꿀꿀길 해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복지팀은 농부양성 프로젝트인 ‘도시(都市) 락(樂)’을 진행한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공모해 선정된 이 프로



종로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농부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램은 농사를 짓지 않은 노인들이 많은 점에 착안한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100여 평의 복지관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재배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게 된다. 지역복지팀은 이 밖에 종로구 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어르신 2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서비스를 실시한다.

정광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은 올해 재수탁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불교스카우트 발대에 주력”

어린이청소년위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과정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어린이포교 활성화와 불교의 국제화를 위해 불교스카우트 창단에 주력한다.

이에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목)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법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3월 1~3일 고양시 한국스카우트 중앙훈련원에서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자 훈련에는 한미음선원, 국제선센터 등 전국 23개의 사찰에서 스님·재가자 41명이 지도자 훈련에 참가했다. 이들은 스카우트 조직과 운영, 기능, 활동의 특징,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해 초·중급 과정의 이론과 실습과정을 교육 받았다.

유진상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청소년팀장은 “이번 지도자 훈련에 참가한 각 사찰들은 빠르면 4월 이내로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는 3월 17일 발대식을 진행키로 했다”며 “현재 조계사와 경국사 등에서도 불교스카우

트 발대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찰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soej94@hyunbul.com

## 불교귀농학교 모집

인드라망생명공동체(대표 도범)가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제3기 불교귀농학교 모집생을 모집한다.

이번 불교귀농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조화로운 사회’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주제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텃밭 가꾸기, 귀농 살림, 귀농선배의 만남 등이론과 현장실습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장에서 3월 27일~5월 24일 매주 화,목 오후 7시 30분 실시되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이들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2) 576-1886

이은정 기자

## 소외된 이웃 지원활동에 주력

불교여성개발원 연간 사업 발표

불교여성개발원이 2012년 여성 불자의 역량 결집을 통해 수행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 한해 여성 불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해왔던 불교여성광장 건립 추진을 중심으로 여성 수행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우선 불교여성개발원은 성남시 고등동 종합복지관을 수탁해 운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주력한

다. 특히 명상·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고봉중고등학교(서울 소년원) 청소년 심성교육, 군 상담, 다문화가정지원 등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또한 불교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들의 수행을 고려한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신모델의 불교리더십을 개발해 여성 불자의 공동체문화 확산에 힘 쏟을 예정이다.

이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지금까지 이어온 <승만경> 대중화 사업을 비롯해 사찰 음식의 대중화,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불교문화 창조,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 나를 찾으면 행복이 보인다

풍경소리, 행복프로그램 시작

명상, 글쓰기 등을 통해 ‘잡나’를 찾아 행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좋은벗풍경소리는 3월 7일부터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나를 찾는 학교’를 연다고 최근 발표했다.

‘나를 찾는 학교’에서는 >술개교실 >글쓰기 명상 교실 >마음 그리기 교실 >어린이 생태문화체험교실이 진행된다.

술개교실은 중년 대상의 명상·심리학·요가 기반의 청춘 재생 프로그램이다. 4주씩 3차 과정으로 수·금요일 오전반(오전 10시) 오후반(오후 2시) 저녁반(오후 7시)으로 나눠 진행된다. 3월 7·9·14·16일 공개강좌가 열린다.

글쓰기 명상 교실은 12주 과정의 글쓰기를 통해 나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두차례 열린다. 3월 20일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마음 그리기 교실은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옮기는 그림명상이다. 12주 동안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차례씩 진행된다. 3월 8일 공개강좌를 연다.

어린이 생태문화체험 교실은 고궁, 박물관, 미술관에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서울 나들이 프로그램이다. 월 1회씩 6개월 과정으로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10시) 오후반(오후 2시) 저녁반(오후 7시)으로 나눠 진행된다. 3월 10·24일이다. (02)736-5583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진각복지재단 헌혈증 130장 전달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정사)은 2월 24일 서울교대 에듀윌센터에서 헌혈증 130 여 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헌혈증은 복지재단이 지난 2월 설립 14주년을 맞아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해 모은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혜정 정사는 “추후 헌혈행사 진행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지속적인 헌혈증 기증할 것이며 협회와 상호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 중도란 무엇인가

4월 3일부터 제마나와 특별법회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이자 최후의 가르침인 중도란 무엇인가.

서울 제마나와선원(선원장 일묵)은 4월 3일~6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13회에 걸쳐 ‘중도 마음의 균형잡기’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선원장 일묵 스님은 “중도는 편견이 없고 균형 잡힌 마음을 뜻한다. 중도를 이해하면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바른 수행법을 터득할 수 있고, 불교에 대해서도 균형각각을 갖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저녁반 외에 동명상통신반도 운영한다. (02)595-5115

조동섭 기자

##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 천 의 선 도

##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 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어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어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